

미국의 20세기와 일본 연구 방법: 미국은 일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손 열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미국의 일본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초점은 인식론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미국학계의 일본상이 어떻게 투시되었으며, 어떠한 변모를 가져왔는가에 있으며, 분석대상은 주로 일본의 정치와 경제에 관한 사회과학적 분석작업에 한정하였다. 내용은 베네딕트와 근대화이론으로부터 출발하여 갈등론, 발전지향형국가 논쟁, 일본두드리기론, 문화연구, 합리적 선택론 등을 중심화와 탈중심화의 흐름속에서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의식과 방법론적 아젠다를 도출한다.

1. 서 론

모든 체계적 지식을 하나의 담론의 양식으로 본다면 — 즉 투명하고 진실된 사실의 구성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본다면 — 우리는 일본학 혹은 일본연구가 이루어 놓은 지식 역시 대단히 회의적,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냉전기에 만들어 놓은 지식체계들에 대한 의문 그리고 이에 따른 종합적, 비판적 반성이 있어왔고, 이것이 바로 기왕의 근대 학문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초점이 상당부분 맞추어지고 있다면, 특정지역연구(area study)라는 분야는 특히 이러한 비판의 주요대상이 아닐 수 없다 (Wallerstein, 1992; 1996). 왜냐하면 지역연구란 애당초 제국주의적 관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그 지역은 제국주의자 혹은 식민지 경략자의 시각에서 부단히 재단되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근대과학이 성립되었던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전반부가 제국주의의 시대였듯이 냉전기 역시 두 제국의 대립, 상호공존 혹은 동침의 시기였다고 한다면, 냉전과 함께 등장한 일본연구 역시 상당 부분 미국의 렌즈에 투영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타자상(즉, “미국의 일본”)이 단지 미국인의 제국주의적 노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자기(즉, “일본의 일본”)(Harootunian, 1993)로 수용되어진다는 것이다. 사이드(Edward Said)의 일련의 노력 — 타자의 구성은 자기정체성의 구축을 위한 지적 프로젝트이었으며, 이는 나아가 타자의 자기상으로 내면화되어지는 탈식민지주의적 과정으로 연결됨(Said, 1979; 1993) — 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미국의 일본상이 우리의 일본상 구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우리의 일본학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일본학을 직접 수용하거나, 혹은 “미국의 일본”을 수용한 “일본의 일본”을 우회적으로 수용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을 보는 방식(즉, 일본학)이란 — 사이드적 표현으로 — 일본을 미국의 경험속에서 위치지우고 이에 근거하여 일본과 관계하는 것이라 한다면, 미국의 20세기 일본학을 하나의 담론으로 다루는 일은 결국 미국의 학문적 전통의 흐름, 사고의 스타일,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제(즉, 본고의 과제)는 단순히 미국의 일본상의 허구성을 폭로하여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가 아니라, 미국(서양) 사회과학계의 지적 흐름에 따라 일본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인식론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일본학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된다.¹⁾ 분석은 냉전기 미국의 중심적 담론으로서 근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이 구성한 일본으로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어 일본에 대한 체계적 지식의 축적은 근대화이론가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들의 일본이 갖는 인식론적 의미 특히 담론적 제약(discursive constraints)을 검토한 후, 이것이 부분적으로 해체/대치되어가는 지적 과정을 추적한다.²⁾

II. 일본의 “중심화”³⁾: 근대화이론

지구상 모든 국가가 겪은 근대의 경험을 하나의 역사계적 속으로 수렴시켜 전체적, 일반적, 보편적인 역사이해의 틀을 제공하려한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근대화이론이었다. 근대화이론가들에게 근대화란 사회가 점차 기능적으로 복잡화, 분화되어가는 과정, 즉 아주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과정의 동력은 배버적 합리성(즉, 수단과 목적의 합리성)의 확산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상에는 중요한 전환점(turning point)이 존재하고, 이 점을 통과하는데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며, 그만큼의 나라별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근대화이론이 보는 근대화의 특징적 모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Alexander, 1995: 67-68).

- (1) 한 사회는 일관되고 응집된 조직체계이다.
- (2) 역사적으로 두 가지 사회체계(전통과 근대)가 존재한다.
- (3) 근대사회란 결국 서양사회이며, 따라서 서양의 장소적·시간적 특성은 일반화된다.
- (4) 근대화는 비혁명적, 점진적 변화의 과정이다.
- (5) 근대화는 성공할 것이므로, 전통사회는 일반화된 발전과정에 적응해 나가면 된다.

1) 진후 미국의 일본학에 대한 회고작업은 주로 단순한 내용분석이나, 이론의 흐름, 정치적상황과의 관련성, 연구자급과의 관련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던 반면(Samuels, 1992; MacDougall, 1994; 최상용, 1994; Koschmann, 1995; 塚本, 1995),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분석과 반성의 작업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

2) 본논문은 미국에서 수행된, 미국에서 출간된 — 따라서 미국인만의 글이 아닌 — 일본정치와 정치경제에 관한 문헌을 중심적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3) “중심화”와 “탈중심화(p. 17)”란 용어는 塚本(1995)에서 차용하였다.

역사적으로 특정한 서양사회 그리고 이의 변화케적이 근대화란 이름의 보편으로 포장되려면, 즉 서양의 경험이 보편적 가치로 특권화되기 위해서는 서양내부의 개별사회들간의 수렴적 경향이 드러나야 했고, 보다 긴요하게 비서양세계에서도 서양적 루트를 통해 근대에 진입한 사례가 발굴되어야 했다. 일본이 그 대표적 사례로 부각되어졌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고, 실제로 일본의 근대화이론화 작업은 상대적으로 초기부터 추진되었다.⁴⁾ 이 작업은 1958년 홀(John Hall)을 중심으로 조직된 근대일본연구회의(Conference on Modern Japan)를 시발로 하여 소위 하코네회의라 불리웠던 미일공동회의를 통해 집중적으로 진전되어졌고, 그 결과는 프린스턴대학 출판부의 5권의 일본근대화론 시리즈로 결집되었다.⁵⁾

이 시리즈 전체를 총괄하는 권두논문에서 홀은 근대화란 서양화가 아님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성공사례로서 일본이 의도적인 서양화의 과정을 밟지 않았음을, 그리고 동시에 서양과 유사한 역사발전을 자생적으로 이루어왔음을 부각시키려 했다 (Hall, 1965: 8, 33). 다시말해, 일본의 역사적 과정도 서양의 경우처럼 오랜기간 대단히 점진적이고 진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⁶⁾ 이러한 근대화상은 워드(Robert Ward)의 일본의 근대정치체제 형성의 분석에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근대정치체제를 (1)내셔널리즘의 의식 (2)안정과 안보 (3)성취 (4)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치엘리트의 존재 (5)사적영역으로의 행정의 확산 (6)민간의 정치참여 확대 (7)기능적으로 분화된 정치기구 (8)정부 정책결정의 세속적, 비개인적, 합리적 체계로 정의한 뒤, 일본의 경우 통치기구의 기능적 분화는 일찍이 12세기부터, 업적주의와 정책결정체계의 합리화는 17세기부터 이루어졌으며, 19세기 이래 내셔널리즘의 형성과 메이지과두세력의 등장과의 결합에 의해 마지막 퍼즐이 해결되었다고 보았다 (Ward, 1968).

일반화된 모습으로서의 근대화가 일본에 실현되었음은 라이샤워와 홀의 일본 봉건제 논의에서 보여진다 (라이샤워-, 1965; Hall, 1968). 이들에 의하면 법률적 권리와 의무

4) 일본근대화론 전반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 검토의 대표적 저작은 김바라(金原, 1968)이다. 그는 일본과 소련등 비서구국가가 왜 일찍부터 근대화이론의 연구대상으로 지정되었는지를 제1부와 제2부에서 밝히고 있다.

5) 이 회의는 홀을 의장으로하여 겐슨(Marius Jansen), 락우드(William Lockwood), 도어(R. P. Dore), 사이블리(D. H. Shively), 워드(Robert Ward) 등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각 집행위원을 중심으로 다섯부문의 연차연구회가 설치되었으며, 하코네회의를 거쳐 다섯권의 작품이 출간되었다. Marius Jansen, ed., *Changing Japanese Attitudes Toward Modernization*; William Lockwood ed., *The State and Economic Enterprise in Japan*; R. P. Dore ed., *Social Change in Modern Japan*; Robert Ward ed., *Political Development in Modern Japan*; and D. H. Shively ed., *Tradition and Modernization in Japanese Culture*.

6) 홀은 반복해서 근대화이론이란 서구의 근대화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가치체계를 일본의 근대화 기준/척도로 삼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근대화란 사회가 점차 기능적으로 복잡화, 분화되어 가는 과정 즉, 아주 일반적인 현상(very general phenomenon)이라 정의하였지만, 그것이 단지 서구국간에만 공유되어진 현상이었음은 자명하다 (Hall, 1965: 8, 31, 33).

의 관계가 중시되고, 상공업자에게 경제활동의 자유가 부여되고, 업적지향적 가치가 중시되었던 봉건제가 서양의 근대사회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일본 역시 자생적 봉건제가 존재하여 근세(early modern)가 준비되어졌다는 점, 따라서 유럽과 일본 간에는 “문명사적 공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근대화론자에게 일본의 근대화란 전통사회(봉건제사회)의 내부로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된 변화의 과정으로서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의 급격한 변화의 산물이 아니었다. 후자는 전통사회의 정치체계가 주요한 정치문제(즉, 서구의 위협)에 반응한 사건에 불과할 뿐이고, 따라서 메이지 엘리트들의 리더십은 혁명적이라기보다는 기왕에 물려받은 정치적 제도들에 새로운 내용을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융합하는 도구적 능력을 표상했다 (Ward, 1968: 581). 이러한 시각은 일본근대화론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잔슨(Marius Jansen)도 공유했다. 그에 따르면 메이지기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등장한 “오래된 과거 즉, 천황이 통치했던 중앙집중적 영역이란 이미지가 유럽의 모델과 유사하다는, 따라서 이 모델이 중국의 모델보다 적절하다”는 관념은 이미 토쿠가와 말기의 國學운동 등에 의해 준비되어졌다는 것이다 (Jansen, 1965: 62). 여기서 새로운 지배엘리트의 공통 목표는 강력한 서양에 대비되는 자신의 취약함 그리고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기왕의 제도를 속에서 “국민적” 대응을 환기시키고 조직화하려는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의 근대화에 대한 “놀랄만한 일관성”이 두드러졌다. 또한 국가이익에 대한 헌신과 책무, 애국적 충동과 신념은 지배엘리트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계층에서 발산되었다 (pp. 65-67).

그렇다면 전환기 일본사회에서 이러한 태도(attitude)의 “수렴”적 경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벨라(Robert Bellah)에서 찾아진다. 벨라의 <Tokugawa Religion(1957)>은 파슨즈(Talcott Parsons)식 베버읽기 — 합리화로서의 근대화는 iron cage가 아닌 good society로 진행 — 와 베네딕트(Ruth Benedict)식의 문화읽기 — 문화적 본질주의(essentialism) — 의 결합이었다.⁷⁾ 그의 구조기능주의는 ‘일본을 좋은 사회로 만들어 줄 수 있었던 중핵 가치(core value)가 무엇이였을까’란 문제관심을 이끌었고, 이런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베버가 보여주었던 방식 즉, 비경제적 합리적 가치와 규범(프

7) 전후 일본연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베네딕트(Ruth Benedict)의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1946)>는 전쟁말기 미국이 적을 — 이제까지 싸워온 가운데 가장 이질적인 상대를 — 이기기 위해서는, 혹은 점령후 적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한다는 목적하에 군의 요청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런고로 저자는 일본전체(즉, Japan as a field)를 간단하고 알기 쉽게 해명해 주어야 했고, 그 기본적 방법은 연구대상(일본)을 서양과 그리고 중국과 비교하면서 일본만이 갖고있는 진수 혹은 본질(essence)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 位階秩序, 恩, 義理, 自重, 恥 등. 그녀의 방법론은 역사성을 결여한(즉, 변화를 거부하는) 그리고 전체성을 부여하는 본질주의(essentialism)로 강하게 비판받는 한편(ハルトウニアン, 酒井, 1997: 8-13), 문화적 상대주의 즉, 자기의 경험과 가치체계에 의해 타자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한 기술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Geertz, 1988: 117).

로테스탄트윤리)이 개인 혹은 집단의 경제적 선택의 근거를 강력하게 제약했던 것처럼 (자본주의 발전), 결과적으로 서양과 유사한 모습의 일본 역시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대응하는 종교적 가치의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t)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Weber, 1930). 베버가 그랬던 것처럼 근대화의 추동이 특정한, 이미 마련된 종교적 요소에 기인한다면, 앞서 언급된 문제 즉, 왜 19세기 중엽 일본에서 사회 전반적인 가치의 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종교적 가치는 사회 어느 일부 그룹에 의해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벨라는 일본 문화의 집단주의적 경향이 경제적 성공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집단주의는 근대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급격한 사회변동과 가치혼란에 대해 완충작용을 하여 점진적이고 진화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근대적 동력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집단주의적 패턴은 토쿠가와 시대의 종교적 특질에 기원한다고 보았다. 이 시기 일본종교는 기본적으로 조화를 강조하고, 이에 기반한 집단적 충성심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종교적 교리는 보통사람들의 삶으로 내면화되고, 봉건적 장벽을 뛰어넘어 전파되었다. 결국 근대국가가 요구하는 문화적 동질성과 평등주의적 관념은 이미 토쿠가와 시대부터 준비되어졌다는 것이다.

근대국가의 문화적 기초가 이미 전통사회(혹은 근세사회)에서 형성되어졌다면, 경제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어져 근대적 자본주의체제를 만들어나간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앞서 언급된 프린스턴대학 출판부 시리즈 제3권 <State and Economic Enterprise in Japan(1958)>이며 그 대표는 락우드(William Lockwood)였다. 그는 거센크론의 후발이론(late development thesis)과 일본의 전통적 문화요소의 결합에 의해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을 설명해 내었다.⁸⁾ 그는 메이지유신 이래 생산수단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모든 투자의 1/4을 담당해 사적행위자의 활동을 후원해왔다는 점에서 일본자본주의를 후원 자본주의(sponsored capitalism)라고 불렀다 (p. 487). 만일 국가가 자원을 주도적으로 배분한다고 한다면, 그 효율성의 관건은 국가내 성청간, 투자기관간, 산업간, 국가와 산업간의 “통일성” 혹은 “만장일치”를 어떻게 도출해 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락우드에 의하면 일본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후발상황이란 제약조건하에서 이들 각부문엘리트들이 그들간에 수평적으로 긴밀하게 엮인 “거미망(seamless spider web)”적 조직/제도를 형성, 변화하는 국제효율의 기준에 적절히 적응해 나간 결과이며, 이 제도는 각 엘리트간에 조화와 합의를 중시하는 가치의 공유에 의해 형성, 유지된다고 보았다 (p. 503).

후발요인과 일본의 중핵가치의 결합은 적어도 1980년대 중반까지 일본정치경제의 분석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해왔다. 도어(Ronald Dore)는 일본형 산업시스템을 영미의 시

8) 일본에 있어 후발산업화론 — 즉, 후발의 상황적 요인 강조 — 의 전개는 이미 1940년에 노만(Norman, 1940)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의 분석들은 대체로 락우드(Lockwood, 1963)에 계승되었다. 그런 점에서 일본학계는 거센크론(Gerschenkron, 196) 이전에 이미 그의 분석들을 사용했던 것이다.

장중심체제와 대조시켜 조직중심체제로 명명하고 일본에 특유한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기업별노조 등의 제도는 단순한 경제조직이 아니라 시장논리로 조직되고 운용되지 않는 사회의 기본단위라 주장했다 (Dore, 1973). 유교적 가치와 내셔널리즘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조화와 협동의 가족주의적 윤리는 일본적 독특성의 상징으로서 가족으로서의 기업이란 경제관념을 형성시켰고 일본의 후발요인이 이를 촉진시켰다는 것이다.⁹⁾ 그러나 보다 종합적인 일본의 표상은 단연 일본주식회사(Japan Inc.)이었다 (Kaplan, 1972). 1972년 미 상무성의 국제통상국 극동부장이었던 케플란(Eugene Kaplan)이 중심이 되어 작성된 소위 관제일본론은, 락우드를 계승하여, 일본에서는 관계와 업계 엘리트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조직”이 존재하며, 그 속에서 “정력적 협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되어 신속, 일관되게 추진됨을 강조하고, 일본주식회사에서의 이러한 합의 도출시스템은 문화적으로 균질적인 일본국민의 강한 일체감, 그리고 동료와의 대결을 기피하고 상이점을 조정하는 합의지향적 자세라는 행동양식에 기인한다고 보았다.¹⁰⁾

이론이 단순히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일 뿐 아니라 하나의 일반화된 담론이라고 본다면, 근대화이론은 하나의 상징체계로서 세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할 뿐만 아니라 삶에 “의미와 동기”를 부여하는 형태로 세상을 해석하려는 즉, 우리가 - 실제로는 제삼세계가 -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를 가르치는 메타언어(meta-language)였다 (Alexander, 1995: 69). 이는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의 역사를 생산해내는 것, 다시말해 상상된 과거를 통해 현재의 고민과 걱정을 해석하려는 작업이었다. 이런 점에서 근대화이론은 근대의 모델로 미국적 대중소비사회(Rostow, 1963)를 설정, 전후 미국사회에 시간적, 공간적 정체성을 부여했다. 이는 전후사회를 “역사화”하는 작업이었고, 이 작업은 바로전의 시간과 장소와의 차이를 구성해냄으로써 성립될 수 있었다.

이러한 대단히 미국적인 그리고 미국을 위한 사고 스타일은 일본을 특정하게 구성했다. 일본은 조화와 협동, 점진적 진화로 살아온, 혹은 살아야 하는 역사이다. 그러나 여기서 역설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근대화이론가들의 추상화, 일반화의 노력(즉, 수렴적 경향)과 정반대로 근대화의 모범사례로서의 일본은 이질적, 특수적으로 그려지게 된 것이다.¹¹⁾ 그들의 일본 근대사는 예외적으로 뛰어난 현실적인 일관성있는 인물군이 올바른

9) 일본자본주의 형성에 있어서 애국심과 유교적 공(公) 관념의 역할에 대한 보다 적극적 해석은 Byron Marshall의 <Capitalism and Nationalism in Prewar Japan(1967)>.

10) 케플란의 일본주식회사는 기왕의 저널리즘차원의 일본주식회사론 즉, 관료(사장)가 직접 명령을 내리고 업계(사업부, 과, 지사)가 이를 따르는 시스템과는 달리, 관계와 업계의 상충부가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사장단회의”적 성격을 가지며, 여기에서 결정된 정책은 긴밀한 엘리트간 연결망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지는 시스템이다. 저널리즘적 일본주식회사론은 1934년 미국 Fortune 지에 언급될 만큼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11) 왜냐하면, 근대화이론이란 전통과 근대의 이분법코드를 만들어 전통에서 근대로의 이동을 가정하고, 기왕의 문화(즉, 역사적으로 특정한 전통)를 바꾸어내면 - 주로, 산업화를 통해(Lipset, 1959) - 새로운 사회(즉, 보편적 근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해, 역사적으로 특정한 범주들(서양적)을 전세계 모든 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 발전이론으로 바꾸려는 일종의 거대한

시기, 올바른 장소에 등장해 그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거나, 혹은 집단주의로 대표되는 대단히 예외적인 전통가치가 근대화에 기능적으로 작동한 역사였다. 결국 일본근대화론은 그 보편의 외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예외적인 사실을 예외주의적 방식으로 구성해낸 것이었다. 요컨대, 서유럽의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역사적으로 특수한 것인 만큼 일본의 전통가치도 그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가치가 내재된 사회가 아니면 근대화이론식 근대화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보편적 근대를 내걸었던 근대화이론은 오히려 시간과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근대의 모습이 존재함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근대화이론의 핵심인물인 락우드, 벨라, 도어 등이 결과적으로 수렴론에 배치되는 일본을 그려낸 점, 그리고 일본주식회사론의 등장이 그 극명한 사례였다. 상이(divergence)론의 극단은 포겔(Ezra Vogel)의 <Japan as Number One(1979)> 즉, 미국은 일본의 경험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 배워야 한다는 주장(learn from Japan)의 등장일 것이다.

III. “중심”의 대체: 발전국가 논쟁

미국 사회과학계에 있어 1970년대가 근대화이론의 쇠퇴기라 한다면, 일본분야 역시 그 예외는 아니었다. 합의와 조화, 점진적 진화의 근대화모델에 저항하는 지적흐름이 몇 갈래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첫번째 흐름은 일본사 내부에서 태동되었다. 일본사를 합의와 협조, 조화의 역사로 보는 기왕의 시각에서 탈피, 갈등을 주요한 역사서술의 개념으로 잡으려는 시도가 그것이었다. 이의 배경에는 1970년대 후반의 민중사 혹은 농민의 집단행동(一揆)연구의 영향이 있었다. 토쿠가와시대의 백성一揆로부터 19세기의 요나오시(世直し), 秩父사건 등을 기술한 사이너(Irwin Scheiner, 1978), 보윈(Roger Bowen, 1980) 등의 저작, 그리고 80년대에 들면서, 와스오(Ann Waswo, 1985), 블라스토스(Stephen Vlastos, 1986), 빅스(Herbert Bix, 1986) 등이 축적한 농민의 역사는 지배자에 대한 농민의 저항을 그려낸 것으로 합의와 조화의 사회상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 근대화이론과 대항한 것은 노만(E. H. Norman)의 일본상의 부활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냉전체제의 폭력성에 대한 인식, 선진 자본주의의 동요, 그리고 민중의 반체제운동이 치열해지면서 젊은 일본연구자들은 근대화이론이 약속한 발전에의 낙관주의에 강한 불신을 보이는 한편, 기왕의 보수적이고 조화와 합의를 강조하는 일본모델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태동되었다. 자연스레 노만의 진보적 학문세계가 부각되어졌고,¹²⁾ 그의 복권에는 다워(John Dower)의 노력이

수렴론이었기 때문이다.

12) 노만은 일본의 근대 추구를 계급관계와 외압, 후발이득이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19세기 중반이래 식민지화의 위협이란 상황하에서 하급무사와 상인간의 계급결합(fusion)에 의해 등장한 계몽적 독재체제(enlightened dictatorship 즉, 明治國家)는 선진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후발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고, 이의 수행에는 당시 일본에 주어졌던 “숨쉴 공간(breathing space)”이 주요한

중추적이었다. 다위는 그가 편집한 노만저작집 <Origins of the Modern Japanese State (1975)>의 서문에서 기왕의 컨센서스 중심 일본론을 단순히 현실인식의 부족 또는 학문적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권력과의 결탁이란 차원에서 즉, 전후 냉전기 미국의 일본연구가 미국정부의 목표/이익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아시아대륙에서 냉전구도가 선명해지고 역코스가 실시되면서, 중국의 공산화에 따른 과격한 발전모델(즉, 중국, 북한, 베트남에서의 공산주의적 근대화모델)의 확산을 차단해야 했던 미국은 아시아와 제삼세계를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세계로 끌어오기 위해 적절한 심리적 프로그램 수립(p. 41)”을 필요로 했고, 학계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상충되지 않는 매력적인 프로그램 즉, 자본주의적이고 점진주의적인 발전모델을 제공해야 했다. 근대화이론은 이러한 정치적/국제정치적 맥락 속에서 탄생되었고, 일본상은 근대화이론이 그럴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측면 그리고 일본의 본래적으로 긍정적인 특질만을 강조하는 선택적 초상(selective portrayal)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노만의 눈에는 민중억압의 기제들이었던 봉건잔재들이 일본성공의 비밀로 둔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침략적 행위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을 경우에는 “현실적이고 기민한 통치수완”으로 그려졌고, 실패로 끝나거나 서양과 심각하게 부딪혔을 경우에는 “정상궤도로부터의 일시적 이탈” 혹은 “불안(malaise)”으로 치부되었다는 것이다 (pp. 81-82).

다위를 필두로 한 젊은 연구자들이 노만에게서 찾을 수 있었던 점은 일본의 정치적 상층부 혹은 지배집단이 공통의 세계관으로 긴밀하게 엮여진 과두체가 아니라, 내부적인 대립과 갈등, 긴장관계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선상에서 새로운 연구전통을 모색한 작품이 나지타(Tetsuo Najita)의 <Japan: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Modern Japanese Politics(1974)>였다. 그는 근대일본정치의 지적 기반을 관료주의와 유신주의(혹은 우상 파괴적 사고)로 놓고, 이를 토대로 제도유지론과 급진적 변혁론간의 역동적 긴장관계를 파악하려 하였다. 나아가 나지타는 코쉬만(Victor Koschmann)과의 편저 <Conflict in Modern Japanese History(1982)>에서 명시적으로 갈등과 저항과 투쟁이란 개념을 일본사의 “잊혀진 전통(neglected tradition)”이라 명명하면서, 이를 포착해내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기왕의 역사가들이 사실(fact)을 통해 객관성을 주장하려 하는데 있어서 역사를 인과적이고 목적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그들이 직면한 역사적 현실의 단절적이고 혼돈적 성격에 대해 저항하는 경향이 있었었다고 비판한 후, 역사를 단절과 사건의 공시적 체계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³⁾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체제는 농민계급의 경제적 희생(즉, 과도한 조세부담)을 바탕으로,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항거를 철저히 탄압함으로써 유지되었기에 결국은 파시즘과 파국(패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Norman, 1940).

13) 이를테면, 일본에 있어서 근대국민국가의 성립은 일본적 문화가치의 기능적 작동에 의해 점진적, 진화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明治維新이란 거사를 단행한 과두 엘리트들이 거사후 마주친 일련의 정치문제들 — 즉, 정치적 권위와 정당성에 관련된 권력싸움 — 에 대한 임

이러한 일본사학계 내부의 새로운 움직임과 더불어 사회과학 일반에서도 동시발생적으로 새로운 시각의 모색이 이루어졌다. 특히 정치학계와 사회학계를 중심으로 1960년대 후반을 넘으면서 근대화이론 패러다임의 쇠퇴와 함께 국가 그 자체가 독립변수로 취급, 연구되어야 한다는 경향이 성립되기 시작했다. 근대화이론의 자유주의적 국가관 즉, 전동벨트(transmission belt)로서의 국가 그리고 네오맑시즘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론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국가 그 자체를 하나의 행위자로 보거나 혹은 사회적 이해를 특정하게 변형시키는 제도의 셋트로 보는 시각은 네틀(J. P. Nettl, 1968)을 선구로 하여 1970년대 후반 크래즈너(Robert Krasner, 1978), 카첸슈타인(Robert Katzenstein, 1978), 스카치폴(Theda Skocpol, 1979) 등을 통해 확산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카첸슈타인의 편저 <Between Power and Plenty(1978)> 속에서 강성국가-약성국가 틀을 적용한 펨펠(T. J. Pempel)의 일본외교정책 결정구조의 분석에 드러났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국제적 압력 혹은 국제상황의 변동에 대단히 취약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석유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국가의 자율적이고 응집력있는 정책추진능력과 국가-사회간의 강한 정책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소위 국가주의적 혹은 국가중심적 접근은 분석적 범주로서 국가의 강조 뿐만 아니라 수렴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점에서 근대화이론과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소위 선진 산업국들(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태리, 일본) 사이에서도 그들의 근대적 제도구조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 그룹은 근대화이론의 문화집착성 — 즉, 정치문화를 변화시키면 근대사회가 도래 — 을 거부, 분석의 초점을 개인의 문화적 가치정향으로부터 거시적 제도(국가기구 및 국가와 사회간의 정책망)로 이동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공간 속에서 등장해 1980년대 이래의 담론을 형성하고 제약한 기념비적 저작이 바로 존슨(Chalmers Johnson)의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1982)> 이었다. 이 작품은 (1)문화적 가치정향을 배격하고 국가(통산성)의 제도적 특질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국가주의를 수용; (2)컨센서스가 아닌 갈등의 조정기제에 관심을 둔다는 측면에서 갈등론자들; (3)거센크론적인 후발성의 강조란 측면에서 노만과 락우드를 수용한 산물이었다.¹⁴⁾

존슨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일본은 발전지향형 국가(developmental state)라는 것이다. 일본의 기적은 기왕의 국가주의자들처럼 단지 국가가 강력하다고 해서, 즉 사회로부터 독립적, 자율적이기에 가능하지는 않았다. 일본의 국가는 경제발전을 최우선 시하였다. 일본 근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창출된 “부국강병,” “식산흥업,” “수출입국,” “소득배가” 등의 슬로건이 보여주듯 일본의 국가는 발전이란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행정지도라는 정부와 업계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제도적 수단을 개발, 변화하는 국제효율의 기

시적(ad hoc), 상황의존적(contingent) 대응의 결과라는 것이다 (Silberman, 1982).

14) 존슨의 저작은 적어도 후발산업화론이란 측면에서 노만의 모델을 전후로 연장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만이 단 한차례도 언급, 인용되지 않았음은 특기할 만하다.

준에 맞게 자원의 흐름을 잘 조율하여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통산성이라는 응집적이고 일관된 지도기관(pilot agency)의 관료가 그 핵심이었다.¹⁵⁾ 이 과정에서 정치가 즉, 집권 자민당은 사회의 지방적 이익추구세력으로부터 관료의 독자성(즉, 사회전체의 이익추구를 위한 발전주의적 전략)을 보호해 주는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하며, 관료의 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그들은 재선과 집권유지를 보장받게 되며, 한편 관료가 전략적으로 선정한 산업의 육성에 호응하는 기업은 각종의 인센티브와 보상을 받는다.

여기서 논리적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왜, 어떻게 일본의 국가는 발전지향적인가?’이다. 이에 대해 존슨은 전형적인 거센크론적 후발이론을 사용했다. 국가간의 경쟁(혹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의해 체제적 불균형이 야기되었을 경우 후발국에는 선발국을 따라잡으려는(catch-up mentality) 발전/성장 우선의 사회적 컨센서스가 도출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관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제도들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후발국이 종종 위기에 직면했고 또한 소위 후발이득(advantage of backwardness)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일본(혹은 독일)이 유독 성공적으로 이 기회를 포착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일찍이 락우드가 봉착했던 이 문제를 그는 문화적 요인의 도입(예컨대, 락우드나 도어 등의 예)을 거부하고 역사적 우연의 결합으로 해소하려 했다. 일본 특유의 제도들은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의식적인 제도혁신의 결과이며, 변화하는 환경에의 적응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학습된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거센크론적 기회구조에 대한 일본의 창조적 적응은 일본의 근대를 집철한 준혁명적 상황의 지속(1920년대의 장기 금융공황, 1930년대초의 세계대공황, 아시아태평양 전쟁, 전후의 경제위기, 오일쇼크 등)하에서의 적응과 학습의 결과였다. 이러한 학습의 주체는 국가관료였고, 그들의 뛰어난이 궁극적으로 일본의 성공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¹⁶⁾

존슨은 새로운 담론의 공간을 열었다. 1982년 MITI 책의 출간 이래 미국의 일본학은 발전지향형 국가를 둘러싼 두 가지 문제의식에 경도되었고, 이는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정치학분야 뿐 아니라 — 존슨은 정치학자 — 경제학, 사회학, 그리고 역사학의 일본연구자들에게 공유된 논쟁이었다. 첫째, 일본 경제기적의 주요인은 산업정책 즉, 국가인가 아니면 시장인가? 둘째, 일본은 누가 통치하는가? 국가관료인가, 정치가인가, 재계인가?

첫번째 이슈는 경제학자들의 도전으로부터 촉발,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야마무라(Kozo Yamamura)는 MITI 책의 서평에서, 산업정책은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를 가져왔을 뿐이며 일본의 성공은 오히려 서구의 시장모델을 충실히 배껴내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일본의 성공은 시장기구에 잘 규율된 기업들이 주어진 시장조건 — 일본에 특

15) 메이지기 이래 정치, 경제과정에 있어서 부국강병 이데올로기의 지속적 작용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사뮤엘즈(Richard Samuels)의 <Rich Nation, Strong Army(1994)>를 꼽을 수 있다.

16) 이런 점에서 카첸슈타인은 존슨의 국가를 “smart state”라 불렀다.

정한 factor endowment, 이를테면 근면하고 잘 교육된 노동력의 풍부한 공급, 가계의 높은 저축율, 저가 에너지의 충분한 공급 등 — 이 제공하는 경제이윤의 동기에 잘 적응했기에 얻어진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라는 것이다.¹⁷⁾ 이와는 약간의 차별성을 가지면서 즉, 일본이 시장기구를 통해 가격왜곡을 수정하여 민간경제의 활력을 증진하였다는 점은 동의하면서도 일본의 경험이 서구모델로 수렴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의 대표자는 도어였다. 그에 의하면 일본기업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상거래 — 소위 “관계적 계약 (relational contracting)” — 를 중시하는 관행이 장기적 관점에서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시장점유율 중시 경영을 이끌었는데, 이것이 바로 일본경제의 강인한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Dore, 1986). 좀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본형 시장경제모델을 발전시킨 이는 아오키(Masahiko Aoki)를 중심으로 한 소위 비교 경제제도분석론자들이었다 (Aoki, 1988; Aoki and Patrick, 1994; Aoki and Dore, 1994). 이들에 따르면 일본은 메인뱅크시스템(main bank system), 기업간 상호출자, 하청제, 종신고용, 연공서열, 기업별노조 등의 특유한 하위제도들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며 평형을 이루는 자본주의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이 대단한 경제효율의 원천이라 보았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 혹은 관민협조체제는 단지 하나의 하위제도일 뿐이다.

한편, 프리드만(David Friedman, 1988)은 기왕의 연구가 대기업 중심 산업성장의 모습에 집중되어 왔음을 비판한 다음, 전체 제조업생산의 50%를 상회하며 노동인구의 70% 이상을 흡수하고 있는 중소기업부문, 특히 공작기계산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본의 경제적 성공은 국가의 전략적 지도의 결과도, 경쟁시장의 효율적 작동도 아닌 중소기업의 유연한 생산전략(flexible manufacturing strategy) 추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존슨처럼 산업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입장은 특히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논자들을 중심으로 계승되었다. 크루그만(Paul Krugman)에 의하면 자본집약형, 그리고 기술집약형 산업과 같은 진입장벽(entry barrier)이 높으며 신기술의 확산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산업섹터에서는 전략적 육성정책이 큰 실효를 보인다 (Helpman and Krugman, 1985; Krugman, 1987). 이런 관점은 1980년대 중반이래 폭발적으로 양산된 미일무역마찰 연구자들이 대체로 공유하였다. 앞서 언급된 미국무성의 일본주식회사론을 원조(元祖)로 하여 드러커(Peter Drucker, 1986), 프레스토위츠(Prestowicz, 1988), 펠로우(James Fallow, 1989), 타이슨(Laura D'Andrea Tyson, 1992) 등 일군의 논자들은 일본의 “전략적” 산업정책이 “부당한 무역행위(unfair trade practices)”에 의한 부의 증대의 원천이라 믿었다. 이들에 의하면 산업정책이 고도성장의 핵심요인임에는 틀림없으나 기적은 서양과 다른 규칙의 게임의 수행(play by different rules)에 의한 산물이었고, 이를 계속하는 한 국제적 무역분쟁은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국제적 평화를 위해서는 “부당한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을 풍

17) Yamamura(1983)참조. 이런 류의 시각은 Patrick and Rosovsky(1976); 그리고 Ohkawa and Rosovsky(1983)이 전형적이다.

미한 소위 일본패리기론(Japan bashing)의 한복판에 존슨이 위치하고 있음은 바로 이러한 까닭이었다 (アキタ, 1993: 53-82).

한편, 산업정책의 역할을 인정하는 논자들이 반드시 존슨처럼 그 정책수립과정에서의 관료의 주도적 역할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무엘즈(Richard Samuels)는 <The Business of the Japanese State(1987)>에서 존슨과 같이 긴 역사적 견지에서 에너지 산업(석탄, 전기, 석유, 대체에너지)을 사례로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있어 업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일본의 에너지 산업정책은 발전지향적 관료의 현명한 정책수립과 에너지 업계의 협조의 결과가 아니라, 양자간의 끊임없는 협의와 타협에 의한 “상호동의의 정치(politics of reciprocal consent)”의 결과이며, 이 동적 과정에서 관료는 사실상 업계의 주도에 순응하는 양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관료우위설과 시장우위설의 중간에 자신을 위치시킨 사무엘즈는 기본적으로 락우드의 거미망(seamless web)이란 비유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일본에 있어 관민엘리트 간의 긴밀하고 안정적이며 거미망같은 네트워크 존재함을 강조했다.¹⁸⁾

네트워크에의 관심은 오키모토(Daniel Okimoto)에 연결된다. 그의 문제의식은 그의 대표작 <Between MITI and the Market(1989)>이란 제목이 시사하듯,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의 효과는 올바른 정책목표와 수단을 현명하게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관철되어 의도했던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데에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정책과 결과를 매개하는 시장조직 및 정치제도의 특성에 관심을 두었고, 양자를 연결하는 정책네트워크이란 중간조직을 설정하려 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는 일본을 네트워크 국가로 명명했다 (p. 226).

일본관료의 독자적, 전략적 개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은 다양한 사례연구들을 배출시켰다. 첨단산업의 사례(수퍼컴퓨터, 개인용컴퓨터, 반도체, 제5세대 소프트웨어 등)를 분석한 앤초도기(Marie Anchordoguy, 1990), 프랜스만(Martin Fransman, 1991), 콜런(Callon, 1995), 사양산업인 섬유를 분석한 맥나마라(Daniel McNamara, 1995)와 우리우(Robert Uriu, 1996), 금융산업의 규제완화 사례를 분석한 로젠블루스(Frances Rosenbluth, 1989) 등은 업계와 관료간의 협상과 타협 그리고 전자의 상대적 주도성을 강조함으로써 존슨의 모델을 경험적으로 비판했다.

18)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바는 업계 역할의 강조가 곧 시장의 강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다원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무엘즈 등은 산업정책이 시장구조의 변화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이는 업계의 주도에 의해 수립되었음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시장에서의 다원적 이해관계는 복수의 이익집단에 의한 그리고 정당에 의한 다원주의적 정치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계단체에 의해 조정되어지고 나아가 국가와의 직접적이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채널을 통해 협의, 협상, 타협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는 오히려 조합주의적 성격을 노출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일본형 조합주의, 소위 “노동없는 조합주의”론에 대해서는 Pempel and Tsunekawa(1979)참고.

한편, 정치가 혹은 집권 자민당의 역할 강조론 역시 존슨이 깔아놓은 담론 속에서 자연스레 등장했다. 무라마쓰와 크라우스(Muramatsu and Krauss, 1987)에 의하면, 전후 발전지향형 국가는 보수정치지도자들에 의한 안정적 정치, 사회질서 만들기의 수단으로 성립되었다. 패전후 요시다(吉田茂)를 중심으로 한 보수정치인들은 대중적 지지조직 기반이 상실된데다, 미군정하에서 전전(戰前)의 보수이념에 근거한 정치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보수분류”라는 실용주의적이고 경제우선, 대미추수 전략 프로그램을 창조해, 이 속에 관료와 재계를 성공적으로 포섭해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대한 국가적 합의 그리고 이 속에서 주요행위자간의 결속의 성공적 유지는 집권자민당 보수정치가의 몫이라는 것이다.

무라마쓰와 크라우스의 주장이 불충분한 증거체시로 이루어진 데 반해, 칼더(Kent Calder)는 <Crisis and Compensation(1988)>에서 풍부한 사례 — 농업, 지역발전, 중소기업, 복지, 토지이용, 방위부문 등 — 를 바탕으로 일본의 경우는 관료의 ‘장기적, 전략적 관점에서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결과로 설명될 수 없다고 보았다. 기본적으로 그는 ‘일본의 발전지향적 관료가 제한된 자금(보조금, 정책금융 등)을 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산업부문(농업, 유통, 사양산업등)에 배분하는가, 그리고 왜 이러한 일종의 재분배정책이 급격히 발생하는가’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의 해답은 저서 제목이 보여주듯,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위기(crisis)”의 시기에 집권당(자민당)이 재분배정책을 통해 “보상(compensation)”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위기”의 강조는 칼더의 전유물이 아니라 존슨 역시 지적하고 있으나 동일한 위기상황이 존슨에게는 관료주도형 시스템의 구축의 계기가 되었음에 반해 칼더에게는 정치가주도형 시스템 쪽으로 기능했다. 그에 따르면 위기상황이 기술관료를 중심으로한 발전지향에의 합의를 도출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민과 중소기업, 대중, 언론에 의한 복지향/재분배향 요구를 강화시켰고 이에 따라 자민당에 의한 보상의 정치가 득세하고 재계 역시 이런 “경제적으로 비생산적인 정책”(p. 37)에 동의해야만 했다는 것이다.¹⁹⁾

발전지향형 국가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쟁이 전후일본 전체를 놓고 진행된 것이었다면,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좀더 “시간”에 관심을 기울여 보는 작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찍이 국가중심적 접근을 적용했던 펨펠은 이후 상당한 궤도수정을 하게 된다. 그는 친미외교군사정책과 고도성장정책을 매개로 관료주도하에 자민당, 재계가 결집된 3자연합구조 혹은 일본주식회사는 1970년대 이후 풀어지게(unbundling) 된다고 주장하였다 (Pempel, 1987). 미국이 일방적 후원을 철회하고 무역마찰이 심화되는 한편 국내적인 인구변화(고령화)에 따라 기왕의 체제는 분절화, 탈중심화, 탈관료화의 과정에 진입했다

19) 後援會選舉라는 일본형 선거운동(Election Campaigning Japanese Style)의 분석으로 일본에서 더 유명한 커티스(Gerald Curtis) 역시 그의 <The Japanese Way of Politics(1988)>에서 집권자민당의 점차 다원화되어가는 사회에 대한 유연한 적응능력이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의 핵심이라 보았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민당과 재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어왔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1970년대 이후의 일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대표적 저작은 앨린슨(Gary Allinson) 편집의 <Political Dynamics in Contemporary Japan(1993)>이었다. 존슨의 일본모델이 1950-6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일반화하였음을 함축한 후, 이 책의 주요 논문들은 1970년대 이후의 변화(오일쇼크 이후의 저성장체제로의 전환, 국제화, 지속적 성장에 따른 사적 부문의 확장 등)가 정치적으로 유동적인, 그리고 경쟁적인 공간을 창출해 낸 결과, 일본정치는 다원화되기 시작되었음을 주장했다. 즉, 새로운 정치세력과 강화된 사회세력이 등장함에 따라 이들과 구세력간의 정치적 거래/협상의 범위와 빈도, 강도가 증가되었다는 것이다.²⁰⁾ 물론 이러한 새로운 정치공간이 미국식 다원주의로의 수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무라마쓰의 지적처럼 다수의(즉, 다원적) 정치세력이 정치적 거래에 참여하지만, 이들간의 관계가 한시적, 유동적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점에서 “유형화(patterned)”된 다원주의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Muramatsu, 1993: 50-52; Muramatsu and Krauss, 1987: 537-43).

1990년대(혹은 1980년대 후반이래) 일본모델의 담론이 드러내는 분명한 특징은 기왕의 모델이 보여주었던 ‘고정된 행위자(관료, 집권당, 재계의 상층부)간의 상대적으로 단순한 상호작용(가령, 관우위, 정치우위, 재계우위)’에 대한 회의였다. 정치학을 중심으로한 일본정치경제 분야에서 이를 대체, 국가와 사회 내부, 그리고 양자간의 보다 다양하고 다층적 수준에서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모습을 잡아내려는 대표적 시도가 위의 작업이었다면, 이는 역사학계에서도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다. 선구적 작업은 글럭(Carol Gluck)의 <Japan’s Modern Myths(1985)>였다. 그녀는 전전일본의 천황제국가 성립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가 기왕의 노만(Norman, 1940)이나 마루야마(丸山, 1964: 9-200)의 시각처럼 수직적, 일방적, 강제적 과정이 아니고, 또한 근대화이론가들의 주장처럼 양자간의 합의와 조화의 과정도 아니라고 보았다.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성립은 단순히 국가의 중심엘리트의 강제적 설득이 아닌, 정부 내에서의 다양한 목소리, 또한 정부 밖의 민간 이데올로그(언론인, 교육자, 지방유지 등) 등이 포함된 다원적 갈등의 결과라는 것이다.

한편 소위 “민중”이란 개념 즉, 억압과 착취와 순종의 “단순하고 균질적인” 집단 개념 역시 도전받게 되었다. 고든(Andrew Gordon, 1991)의 해석처럼 전전기 민중의 일부는 민주주의적 에너지의 한 동인이었던 동시에 개런(Sheldon Garon, 1987)의 지적처럼

20) 정치가주도 모델을 주장했던 콜더는 1993년의 저서 <Strategic Capitalism>에서는 다원주의모델로 전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배분(credit allocation)을 둘러싼 정치게임을 분석하고자 한 콜더는 적어도 1964년 외환관리법의 완화에 의해 통산성이 외환할당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국가에 의한 전략적 신용배분”의 성격이 희석되었고, 이후의 게임은 다원화된 정부행위자들과 사기업들간의 전략적 교환에 의해 진행되어져 왔음을 주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콜더는 일본정치의 다원주의화의 계기를 1960년대 특정제도(법)의 변화에서 찾음으로써, 1970년대 이후 일본의 내적, 외적 환경변화에 주목했던 기왕의 다원주의자들과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의 일부(예컨대, 노조지도자, 종교단체, 여성단체 등)는 군국주의적 강경 노선을 견지하였던 사실을 미루어 보면, 민중/사회와 국가간에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상호관계가 존재하였음이 드러난다.²¹⁾ 개런의 <Molding Japanese Minds(1996)>는 이런 점에서 가장 포괄적인 노력이다. 그는 일본의 국가가 소위 “사회경영(social management)”을 통해 민중의 일상적 삶을 국가프로젝트에 맞게 변형시키는 과정을 다양한 레벨과 사례 속에서 서술하였다. 가족정책, 종교정책, 매춘정책, 여성조직 관리 등의 분야에서 국가는 사회내의 다양한 집단들과 빈번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민중의 일상생활을 교화(moral suasion)하려 하였고, 후자는 자발적, 적극적 협력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존슨이래의 일본모델 논쟁은 산업정책의 효과에 관한 논쟁, 그리고 산업정책을 누가 결정하는가 다시말해서 누가 통치하는가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수많은 연구물들은 제각기 택한 사례를 통해 저마다의 주장을 입증하려 하였고, 또 어느 시기를 주 연구대상으로 삼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과연 어느 견해가 타당한 것인가는 본고의 관심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존슨이 깔아놓은 담론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일이다. 존슨은 일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1) 정치경제를 일본전체상의 축소(microcosm)로 위치시켰고, (2) 엘리트간의 상호작용을 분석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이에 따라, 경이적 경제성장이란 역사적 사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이슈는 문제관심의 영역에서 제외되고 — 즉, 주류 일본학에서 멀어지고 — 정·관·업 삼각형의 내적 역동성의 해명이 문제핵심으로 부각되어졌다. 이런 맥락에서 존슨의 관(통산성) 주도 주장은 자연스레 다른 두 꼭지점(정과 업)으로 문제관심을 유도했고, 그 결과 삼각형 외부에 존재하는 비엘리트들의 목소리와 삶은 상대적으로 주변화되거나 종속변수화되었다. 그 가운데, 몇몇 작업들은 일본사회에서 어떻게 이들이 주변화되어지며, 여기서 국가는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여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는지를 구명하려하였다. 앵터와 사와(David Apter and Nagayo Sawa, 1984), 업햄(Frank Upham, 1987), 파(Susan Pharr, 1990), 헤일리(John Haley, 1991) 등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일본에서는 갈등해결의 효과적 법절차(due process)가 존재하지 않으며, 엘리트 씨클 밖에는 적절한 협상기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비엘리트 집단은 국가에 의한 갈등의 사영역화(privatizing) 전략에 좌절하고 결국 국가의 직접적 중재나 타협의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1)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일본의 제국주의전쟁과 관련된 책임 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마루야마 등에 의하면 파시즘과 침략의 주역은 국가엘리트와 부르조아 그리고 기타 비엘리트층이며, 따라서 전쟁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분명 이들에게 있으나, 국가와 사회와의 보다 복잡한 상호작용의 해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책임의 소재/분담은 폭넓게 확대되어진다. 즉, 민중은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었던 동시에 군국주의의 능동적 협력자였고 대륙에서의 잔인한 침략자였다 (ダ-ワ-, 1995: 242-43).

IV. 일본의 “탈중심화”: 탈구조주의와 문화연구

1970년대 이래 역사학계에 등장한 일련의 민중사 연구가 합의와 조화를 강조하는 근대화이론을 거부하고 갈등의 역사를 그려 내려한 시도였음은 전술한 바 있다. 노동자, 농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가 자본주의적 발전의 이면에 가리워진 은폐된 삶을 드러내는 시도였다면, 1980년대 중반부터는 이를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지식의 존재방식, 사용, 혹은 연구의 방법 자체에 문제의식을 조준하는 지적흐름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지역연구로서 일본연구, 즉 타자의 연구라는 입장에서 타자를 기술하는 그 자체를 문제화함으로써 학문의 지적 전체 자체를 성찰하자는 움직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저작은 의문의 여지없이 사이드(Edward Said)의 <Orientalism(1979)>이었다. 사이드는 소위 서양적 기준으로 비서양을 재단하지 말아달라는, 따라서 비서양의 문화적 고유성을 존중해 달라는 통상적 서양중심주의 비판론을 넘어서서, 동양의 재단 그 자체가 서양의 정체성 구축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음을 밝히려 했다. 그는 근대적 지식의 근본적 전제, 이른바 지식과 권력간의 필연적 관계를 비판적으로 폭로하는 과정에서 타자로서의 동양이 서양의 반사경으로서 대상화되어지고 전체화되는 즉, 동양에 대한 전체적 지식이 추구되어지는 해석전략의 형성에 주목했다. 오리엔탈리즘적 패러다임에 의하면 동양은 스스로 완전히 조직된(thoroughly organized) 내적응집성(internal coherence)을 가진, 규칙적인 성격을 보유한(possessing regular characteristics), 안정적이고(stable) 고정불변적인(unchanging) 연구대상이다 (p. 32, 38, 40, 42). 이러한 시각을 일본지역연구에 적용한다면, 서양/미국에 있어 일본에 관한 지식을 생성하는 과정이란 타자를 한정, 대상화함에 의해 자기를 규정하려는 담론의 기체이고, 이는 곧 타자로서의 일본을 “통일적이고 안정된 연구대상” 혹은 “전체화된 통일체(totalized unity)”로 지시, 한정시켜 기술하는 것이 되어진다.²²⁾

일본을 궁극적으로 이해관계로부터 생성되는 연구상의 범주로 보는 해석전략은 하루 튜니언(Harry Harutoonian)과 나지타(Tetsuo Najita)를 중심으로한 소위 “시카고 학파”에 의해 하나의 대체적 접근으로 발전되었다. <Postmodernism and Japan(1989)>이 그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다양한 논문들을 수록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본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문제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이들이 독자의 환기를 요구하고 있는 점은 서양중심주의 비판에 근거해 교묘히 동양적 전통을 초기 탈근대주의로 설정하려는 시도, 즉 탈근대 용어를 사용해 전통을 격상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명백한 거부였다.²³⁾ 이러한 입장은 1930년대와 40년대

22) 아미노(網野善彦)에 의한 일련의 작업들은 일본이라는 연구대상의 윤곽 혹은 국경이 지극히 불명료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위 “아미노학”의 종합, 요약은 『岩波講座 日本通史』(總25卷)의 총론인 『日本列島とその周邊-日本論の現在』(第1卷 1993: 3-40)에 잘 드러나 있다.

23) 대표적으로 우메하라(梅原)를 중심으로한 신교토학파는 우선 동서문화의 융합 가능성을 지적한 후, 사해동포주의(cosmopolitanism)의 가변하에서 이의 실현은 탈근대 일본에서만 가능하다는

초반의 일본지성사를 분석한 나지타와 하루튜니언의 논문 “Japanese Revolt Against the West”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Najita and Harootunian, 1988). 일본에 있어 동양/일본 전통의 창조(즉, 신비화된 일본)는 바로 일본 자신에 의해, 일본을 위하여, 그리고 서양에 대항하여 만들어 졌다. 이는 서양을 대상화, 정형화하고 이를 반사경으로 삼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보는 소위 역오리엔탈리즘(혹은 옥시덴탈리즘)적 수법이었고, 결국 일본은 그들이 극복하려고 한 서양의 범주자체(즉, 동/서 준별, 표준화, 고정관념화)를 영속화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²⁴⁾ 오리엔탈리즘적 담론에의 함몰은 필연적으로 현실은폐 및 억압의 이데올로기를 수반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사고는 궁극적으로 전후 특히 1980년대 일본의 지성계를 풍미한 소위 “니혼진론(日本人論)”으로 연결되어진다.²⁵⁾

이러한 시각에서 일본연구를 본다면, 기왕의 일본문화론(혹은 니혼진론) 뿐만 아니라 근대화이론은 물론이고 존슨 이래의 일본모델 싸움 역시 비판의 사정(射程)안에 위치된다. 근대화이론가들은 통일적 전체성으로서의 일본을 만들어 내었고 — 즉,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일본적 문화가치(집단주의)에 의한 일본의 전체화/중심화 — 존슨 역시 근대화이론가들의 일본모델을 새로운 모델로 대체했지만 인식론적으로는 그들을 그대로 계승했다. 즉, 전체화된 일본의 마스터코드(master code)를 일본적 중핵가치에서 발전지향형 관료로 대치한 것이다. 존슨 비판은 그가 답습한 인식론의 구성을 문제삼기보다는 또 다른 마스터코드의 제시를 둘러싸고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담론은 대단히 독특한 일본을 만들어내었고, 일본은 하나의 고정된 연구대상이었다.²⁶⁾ 일본은 미국/서양과는 대단히 이질적인 사회이며 그들의 행위유형 역시 그럴 수밖에 없다. 일본은 전적으로 내적

자문화중심주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 가령, 해체주의(탈구축주의)의 대표적 철학자인 데리다의 해체적(탈구축적) 사고는 일본의 켄불교의 사고체계로 수렴되며, 탈중심화 전략은 이미 니시다(西田), 니시다니(西谷), 아베(阿部) 등 1930-40년대의 교토학파의 사상 — 모든 고정된 형이상학적 중심을 거부하는 무한의 열림의 세계 — 에 그대로 드러나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통이 근대적 실체로서 일본의 성공을 이끌었다는 소위 근대화이론식 해석으로부터 탈피하여, 일본의 성공을 탈근대적 현상으로 즉, 근대화의 결과에 회의하는 방식을 따라 일본전통을 격상, 특권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했다. 이것이 1980년대 나카소네(中曾根康弘) 주도의 “국제화”론과 결합될 때 일본은 탈근대적 발전의 국제적 모범국가가 된다. 1980년대 국제화론의 비판적 검토는 아이비(Ivy, 1989).

한편,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엿보인다. 전형적으로 스탠포드대학 출판부의 일본정치경제 시리즈 제 3권인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Volume 3: Cultural and Social Dynamics(1992)>에서는 전통가치(예컨대 일본적 사회조직원리로서 “이에시스템”)가 근대화의 수행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즉, 근대주의적, 중심주의적 전통관), 동시에 탈중심적이고 유연하며 무정형의 탈근대적 네트워크 사회구조의 원형으로 변모되기도 했다.

24) 소위 “일본의 미국”이 극단적 역오리엔탈리즘으로, “미국의 일본”이 극단적 오리엔탈리즘으로 표출된 경우는 바로 태평양전쟁기였다. 이를 극적으로 서술한 걸작은 의문의 여지없이 다워(John Dower)의 <War Without Mercy(1986)>이다.

25) “은폐의 담론”의 분석은 하루튜니언의 지속적 과제였다 (Harootunian, 1987; 1989; 1990; 1993).

26) 존슨의 “smart state”는 결국 ‘일본은 독특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특하기 때문에(Japan is unique because it is unique)’라는 예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요소들의 결합에 의한 산물이며, 그 내적 요인이란 일본적인 것이고, 일본적인 것이란 비서양적인 것이다. 이러한 사고들은 바로 반세기전 루스 베네딕트의 유산이었다. 그녀의 해석전략에 따르면 ‘일본적’이란 일본이란 연구대상에서 “미국적(즉, 서양적)”인 것을 추출하고, “중국적”인 것을 추출한 후 남는 것이다. 문화란 제요소의 물리적 결합의 산물이었다.

베네딕트로부터 문화상대주의적 관념을 사상하고, 그 대신 존슨적 예외주의에 황화론을 융합한 작품이 바로 반 윌퍼렌(Karel van Wolferen)의 <The Enigma of Japanese Power(1989)>였다. 일본 패리기론의 대표자로서 그는 ‘일본이 어떤 점에서 다르게 행동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란 근본적인 질문을 동/서의 날카로운 대치 구도 속에서 해명하려 하였다. 그는 보편주의적 서양과 특수주의적 일본을 상정하였다. 예컨대, 권력의 행사양식이란 점에 있어서 서양의 경우 배버적인 공식적, 절차적 규칙(rule)에 의해 권력이 행사됨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파벌, 인맥, 담합, 야쿠자와 같은 비공식적, 즉 전근대적 방식에 의해 행사된다. 물론 후자의 관계 — 소위 후견주의(clientalism) 혹은 연고주의(cronyism) — 가 일본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일본의 독특성은 상층부의 준자율적 엘리트집단(semi-autonomous elite groups) — 예컨대, 개별행정관청, 업계, 집권당, 언론 등 — 들이 서로간에 견제하고 연합, 병립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있으며, 이의 형성, 유지에 위와같은 전근대적, 특수주의적 가치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치시스템의 최대특징은 궁극적 책임을 지는 최상층부(top)가 부재하다는 데 있다. 그는 이를 머리없는 닭(headless chicken)으로 불렀다.²⁷⁾ 적어도 표면적인 권력분산 — 권력의 수평적 병립과 상호견제의 외양 — 은 밑으로부터의 요구와 압력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의 소재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엘리트들의 권력유지를 보장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의 비난과 압력을 교묘히 회피하는 기제라는 것이다. 이는 특히 무역마찰 사례에 극명히 드러난다. 협상과정에서 일본측은 자신의 목표(수입장벽의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궁극적 결정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 소재를 모호히 하고, 쉽게 말을 바꿈으로써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서양인을 분노케 한다 (p. 9). 이러한 현상은 보다 근본적으로 일본인의 특성에 기인한다. 일본인은 서양과 달리 절대적 도덕원리나 가치관에 근거하지 않고 상황윤리에 근거해 행동한다. 이는 초월적 믿음의 부재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 결과 그들은 논리적인 모순이나 애매함에 대해 문화적으로 대단히 관대하다. 여기서 극단의 오리엔탈리즘 — 예컨대, 동양적 정신상태를 “이중사고(double think)”란 언어로 표상한 오웰(George Orwell)과 유사한 형태의 — 이 표출된다. 동양인은 서로 배치되는 생각을 한마음에 담고 필요에 따라 이를 믿거나 부인하고, 잊거나 상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동양의 힘은 타인들로부터 자신의 생각 혹은 진실을 억

27) ‘일본주식회사론’과 반 윌퍼렌의 기본적인 차이는 양자가 관료집단간, 업계간, 그리고 이들과 정계와의 수평적 균형과 긴밀한 상호작용은 동의하면서도, 전자는 이들 권력엘리트간에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한 정책결정시스템 — 가령, 사장단 회의 — 의 존재를 부각시킨 반면, 후자는 이의 부재함을 강조하였다.

제하고 숨기는 능력에서 도출된다 (Pietz, 1988: 62). 동양인/일본인에게 현실(reality)이란 객관적 관찰의 결과가 아닌 변형가능한 그림(malleable reality)이므로 언제나 조작이 가능하다 (van Wolferen, 1989: 8). 결국, 일본인의 독특한 사고체계, 독특한 권력행사방식, 권력엘리트의 욕망이 결합되어 생산된 일본의 “체제(the System)”는 일반대중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이 결여된, 또한 서양의 보편적 룰을 교묘히 악용하는 대단히 위험한 체제이다.

반 월퍼렌의 일본론은 <Japan 2000>이라는 CIA 지원 보고서에 악마적으로 증폭되어 나타났다 (Dougerty, 1991). 여기에 제시된 일본적 패러다임은 첫째, 반 월퍼렌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국가는 주권국가이면서도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중앙정부기구가 부재하다. 둘째, 일본은 자본주의경제체제이면서도 관료와 기업이 긴밀히 결합하여 적대적 무역을 행하는 시스템이다. 셋째, 일본은 동일한 룰에 의해 경기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넷째, 일본인은 근본적으로 세계의 복지보다는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 인종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경제를 지배하려는 데 있으며, 이에 광신적 충동을 지니고 있다. ‘떠오르는 태양’은 이미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극단적으로 전체화된 일본상(하나의 일본)을 거부하는 지적 모색은 주로 영문학과 인류학 등으로부터 시발된 비판이론 — 혹은 탈구조주의, 탈근대주의적 인식론 — 에 영향을 받았으며, 앞서 언급한 시카고 학파가 그 하나였다. 1980년대 후반 이래 “일본”의 해체/탈구조 작업은 가령, 대표적인 일본어 문학작품의 비평을 통해 “일본,” “일본적 전통”이란 19세기 이래 서양과의 접촉과정에서 형성된 역사적 조형물이며, 따라서 그 범주 자체에는 필연적으로 권력관계가 내재되어 있음을 밝히려 한 미요시(Masao Miyoshi)의 <Off Center(1991)>²⁸⁾ 20세기 초 일본의 동양학 담론의 분석을 통해서 서양에 대칭되는 “자기”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아시아 속의 동양 즉, 오리엔트 — 중국과 조선 — 를 설정, 대상화하는 지적생산과정을 파헤친 다나카(Stephan Tanaka)의 <Japan’s Orient(1993)>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아이비(Marilyn Ivy)는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여 현재 일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녀는 자본주의적 근대의 풍경(landscape) 속에서 문화산업(culture industry)과 제도를 동원, 순수 일본적인 것을 복원하려는 일본 내의 노력을 “사라짐의 담론”<Discourses of the Vanishing(1996)>이라 불렀고, 이를 분석하면서 상상된 국민문화의 응집성(coherence) 혹은 일본문화의 내적 확실성(interior certainties)을 교란하는 — 즉, 환영(phantasm)을 깨는 — 다양한 목소리와 행위를 폭로하였다.

이상의 저작들이 국민문화 정체화의 지배적 담론을 그 내부로부터 분석한 것이라면,

28) 이와 유사한 작업은 미요시와 하루튜니언(Miyoshi and Harootunian) 편집의 <Japan in the World(1993)>로서, <Postmodernism and Japan>의 후속편으로 편집된 이 저작은 주로 일본적 정체성의 형성과 미국의 존재와의 관계를 중심테마로 삼고 있다.

주변의 담론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되었다. 예컨대, 자본주의적 발전의 이면에 존재하는 억압과 좌절의 삶을 복원하려는 시도는 소위 “두 일본(two Japans)”의 관념을 전달한 하네(Mikiso Hane)의 연구가 선구적이다. 그는 대표작 <Peasants, Rebels, and Outcasts: The Underside of Modern Japan(1982)> 속에서 가난한 농민, 여성근로자, 창녀, 탄광노동자, 部落民 등 사회적 약자의 일상적 삶을 서술함으로써 중심의 역사, 엘리트의 역사, 발전의 역사의 이면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일본을 복원해 내었다. 그러나 보다 본격적으로 비판이론에 기반하여 — 즉, 기왕의 포괄적 거대이론 혹은 메타 이야기 혹은 패권적 속성의 부각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하여 — 주변과 한계지점(margins)의 생활상을 그 지점으로부터 드러내려는 노력은 1990년 전후부터 경주되었다. 탈근대 일본의 “폐쇄적” 모습을 날카롭게 파헤친 기념비적인 저작은 필드(Norma Field)의 <In the Realm of A Dying Emperor(1991)>이다. 그녀는 일본의 중심의 역사(예컨대, 천황제시스템)를 거부하는 세 소박한 “비일본적,” 혹은 “이단자적” 일본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들의 삶을 구속하는 정치적 억압과 더불어 전후 경제적 변영이 만들어 낸 보다 확산된 형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적 억압을 날카롭게 부각시켰다. 무어(Joe Moore) 편집의 <The Other Japan (1997)> 역시 중심에서 배제된 사회적 다수의 삶을 새롭게 포착하려 하였다. 예컨대 공사판 노동자들은 대형건설회사와 야쿠자, 경찰간의 부패한 결탁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으며, 샐러리맨들은 기업전사로서 과로사를 각오하고 일하고 있으며, 여성은 전업주부로서 샐러리맨인 남편이 그의 기업, 나아가 일본의 경쟁자와의 경제전쟁에서 가진 모든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도록 — 즉, 기업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 내조하는 역할에 국한되고 있다. 이들은 결국 전후일본에 있어서 가부장적 권위와 자본주의적 발전의 결합에 따른 비용을 치러야 했던 최대의 희생자라는 것이다. 여성사의 경우, 번스타인(Gale Bernstein) 편집의 <Recreating Japanese Women(1990)>은 탈구조주의 이론의 영향하에서 근대일본에 있어 성(gender)의 구축을 시도한 획기적 저작이었다.

그렇다고 이들 사회적 다수가 소수엘리트 중심의 일본적 정체성(조화, 동질성, 종신 고용, 조직맨 등과 같은 고정관념)과 명확히 구분되는 또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콘도(Dorinne Kondo)는 가족소유의 중소기업 속에서 전개되는 일상생활을 기록하면서 이른바 정체성의 이항대립적 구도를 거부하고 — 예컨대, 착취하는 대기업 대 착취당하는 중소기업 — 훨씬 복잡하고 양면적인 자기(self)의 형성을 보였다 (Kondo, 1990).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정체성이란 기본적으로 “고정된(fixed), 일관된, 통일된, 명확히 경계지워진 무엇”이 아니라 성, 계급, 나이, 지역에 따라 “교섭되어지고, 열려진, 변화하는, 모호한 것”으로 자기와 타자간의 권력이 수반된 교섭의 결과이었다 (p. 24). 이러한 입장은 요컨대 자기의 형성이란 개인과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간의 끊임없는 동적 관계의 결과라고 보는 바흐닉과 퀴(Bachnik and Quinn) 편집의 <Situated Meaning(1994)>으로 연결된다. 일본인은 “상황의존적 인간(contingent individual)”이며 따라서 하나의 일본이나 두 일본이 아닌 “여러 일본들(many Japans)”이 존재할 수 있다.

V. 세계화와 신근대화?: 합리적 선택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사회과학계, 특히 지역연구와 관련된 분야는 이상과 같은 문화연구의 영향을 받게되는 동시에 이와 극적으로 정반대의 지적흐름(신고전과 경제학의 영향)에 직면하였다. 이른바 시장과 주관적 합리성의 전면적 대두였다. 이 시기는 크게 세가지 거대한 현상적 변화를 경험한 시기였다.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도산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좌파지식인의 대안을 소멸시켰고, 둘째로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상은 적어도 후진국들에게 사회주의적 통제경제가 아닌 자본주의국가에 의해 긍정적으로 사회, 경제가 변모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게 되었다. 셋째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은 서구 자본주의국가들 사이에 경제관계에 있어 “시장”의 확장, 그리고 사회경제 변화에 있어 시장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믿음의 증대라는 사실이었다. 대처와 레이건정부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성과가 이를 의미했다.

자본주의적 시장의 부활은 전지구적/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났고, 시장이라는 범주적으로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보편주의적” 언어는 인류의 “공통성”과 “제도적 수렴”이란 관념을 강하게 이끌었다. 시장은 가격기구의 작동의 영역이며, 가격은 복수의 개인적 집단적 선택에 의해 체계적으로 구성되며 동시에 이를 구속하고, 선택은 주관적 합리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여기서 모든 인간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동일한(혹은 대단히 유사한) 사고의 범주(preference ordering)를 지니고 있다. 그들에게 선택의 기준은 자명하며(self-evident), 이에 따라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가 시도된다. 여기서 개인 혹은 그가 속한 집단의 정치적 성향 및 결정의 차이는 그들을 둘러싼 제도들(혹은 게임의 룰)의 차이에 기인할 뿐이다. 따라서 공통의 게임의 룰(즉, global standard)이 마련되고 이에 모든 정치경제 집단이 수렴되어질 경우 인류는 결과적으로 조화롭게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어렵지 않게 도출된다. 새로운 시장이론 즉, 개체중심의 합리적 선택이론은 적어도 “수렴”과 “시장자본주의적 근대화(특히 구사회주의권)”에 대한 믿음이란 측면에서 보면 근대화이론의 부활을 뜻한다.²⁹⁾ 이들이 표방한 “세계 인간(global individual)”은 세기말의 “세계시장(global market)” 혹은 다국적 기업의 세계와 절묘하게 조응된다.³⁰⁾

경제의 세계화와 더불어 미국사회과학계에서 합리적 선택론의 유행은 지역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는 일본특수론 혹은 일본이질론에 대한 도전의 성격을 띠었다. 합리적 선택론자에 따르면 일본의 특유한 정치현상 — 가령, 현상적으로 자민당 장

29) 구사회주의권에 대한 IMF와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빅뱅식 처방은 삼십여년전 로스토우의 이륙(take-off)이론의 재발견처럼 보인다 (Alexander, 1995: 98).

30) 이런 점에서 커밍즈(Cumings, 1996)는 세계화 시대에 들면서 다국적 기업이 합리적 선택론의 치어리더(cheerleader)가 되어왔음을, 즉 돈 — Ford Foundation, Carnegie Foundation 등으로 부터의 연구비 — 이 문화연구를 거부하고 합리적 선택론에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집권, 후원회선거, 아마쿠다리, 혹은 개념적으로 컨센서스 지향의 정치, 집단과 화(和)의 중시 등 — 은 일본 특유의 사고 및 관행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제도적 조건(게임의 룰) 하에서 정치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의 대표적인 로젠블루스(Frances Rosenbluth)와 램지어(J. Mark Ramseyer)의 <Japan's Political Marketplace(1993)>이다.³¹⁾ 이들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전후의 일본 정치는 일반유권자, 자민당의원, 관료 세 행위자간의 합리적 상호작용으로 전개되어왔다. 자민당의원은 선거에서 재선되기 위해 — 혹은 자민당은 집권의 유지를 위해 — 유권자는 자신의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의 확대를 위해, 관료는 자신의 승진 혹은 자신이 속한 부국(部局)의 권한 확대 혹은 퇴임후 자리 확보를 위해, 각자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다. 여기서, 이들 사이의 관계는 소위 의뢰인-지배인 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 즉, 한 당사자(의뢰인)가 다른 당사자(지배인)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자신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일본의 경우, 대리인의 태만(agency slack) 혹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따라서 기본적인 기제는 견재하다. 예컨대, 주인으로서 자민당은 정치시장(즉, 유권자)로부터의 신호(signal)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을 대리인인 관료가 효율적으로 수립,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수단(법안의 비토권, 고위직 임명권, 관료 업무수행에 대한 직간접적 정보수집기제, 퇴임후 직장 관여 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로젠블루스와 램지어에 의하면 일본에 있어 궁극적인 권력주체는 집권당이다. 관료는 집권당의 이익을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시장원리는 — 정치적 시장원리는 — 분명히 작동하며, 따라서 일본의 내부구조 및 행위자간 상호작용의 과정은 서구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³²⁾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일본의 독특성은 과장되어 있다.³³⁾ 일본의 표면적 독특함은 지극히 보편적 과정 — 즉, 합리적 선택의 결합과 상호작용 — 의 결과이다. 앞서 언급한 이론등장의 배경을 고려한다면 이는 당연한 결론이다. 일본은 이미 수립되어 있으며,³⁴⁾ 여기서 수립으로의 보편성

31) 합리적 선택론에 의한 전전일본의 분석은 Ramseyer and Rosenbluth(1996), 전후정당정치 의 분석은 Kohno(1997)를 꼽을 수 있다.

32) 그런점에서 일본에 합리적 선택론을 적용한다는 것은 바로 문화적 인간 — 또한 상황의존적 인간 — 으로서 일본인을 해체한다는 의미였고, 따라서 일본이질론으로 대표되는 기왕의 일본 연구전통에 대한 도전이었다.

33) 김기석, 「서평: Japan's Political Marketplace」, Japan Study(1998.4.12), p.4. 여기서 일본도 민주주의국가라 할 때 민주주의란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뜻한다. 그러나, 실질적 민주주의 즉, 정치적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의 정도란 차원에서 볼 때, 램지어와 로젠블루스는 선출된 정치인과 정당지도부, 그리고 정당지도부와 관료, 그들과 판사 간의 관계에서는 소위 agency slack이 최소화되어지고 있으나, 일반 유권자와 이들(특히 선출된 정치인) 사이에는 커다란 agency slack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에서 이들도 실질적 차원에서의 일본 민주주의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4) 물론 여기에서의 수립은 사고범주와 행위의 수립이지 행위결과와 수립을 뜻하는 것은 아

은 바로 미국의 경험일 수밖에 없다. 삼십여년 전 기본적으로 오하이오의 소도시를 일반화/낭만화한 파슨즈의 모델이 근대화이론이란 이름하에 일본에 적용되었다면(Harootunian, 1993: 209), 로젠블러스와 램지어의 일본은 미국의 의회정치를 일반화한 모델의 적용이었다.³⁵⁾

VI. 결 론: 방법론적 반성과 모색

전후 미국의 일본학은 베네딕트의 국민성론에 근대화이론이 결합되어 강력한 담론을 형성하였다. 이는 다시말하면 베네딕트의 “고정된 현재(a fixed present),” 그리고 근대화이론의 “현재를 정당화하는 불가피한 전개(inevitable unfolding)”를 드러내는 일본학이었다.³⁶⁾ 일본상은 현재모습의 전체화이며 지나간 과거는 현재순간에 대한 배경으로서 즉, 단선적 진화의 과정으로서 취급된다. 변화(즉, 역사)는 존재하되 “예상치 않았던 변화, 예기치 않았던 지속”(Gordon, 1993)은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 가령 근대화이론이 수렴적 역사과정(즉, 항상 수렴하는 쪽으로 변화)을 제시했다면, 존슨 등은 지속적, 일관적 상이(divergence)의 과정을 주장했다. 전자의 경우, 12세기이래의 점진적, 진화적 변화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근대국가를 완성시켰다면, 후자의 경우 행정지도에 의한 관민협조의 자본주의체제(발전지향형 국가모델)는 20세기초반 이래 사적통제와 국가통제를 거친 예외적인 단선적 경험과정의 종착역이었던 것이다. 또한 1982년 이래의 발전지향형 국가 논쟁 역시 대체로 어느시기의 일본을 그리고 어느부문의 일본을 전체화, 일반화하였는가에 따른 지적 경합이었다. 예컨대, 고도성장기 일본(1960년대와 70년대 초반)의 모습을 중심에 놓고 이전 시기를 전체화한 존슨에 대해, 무라마쯔와 크라우스는 1980년대를 중심으로하여 전후(戰後)를 재포장했으며, 통산성 중심 일본(존슨)에 대한 대장성 중심의 일본(콜더), 대기업 중심의 일본(존슨)에 대한 중소기업 중심의 일본(프리드만) 등의 대립 역시 개별 섹터의 경험을 전체화한 결과 야기된 싸움이었다.

요컨대, 전체화된 일본의 추구는 베네딕트와 근대화이론가에서 출발, 존슨에게 이어졌고, 밴 윌퍼렌을 거쳐 합리적 선택론자들에 의해 극대화되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베스터코드(즉, 합의지향의 중핵가치, 발전지향형 관료, 엘리트간 음모적 결탁, 의뢰인-후견인관계)를 제공했고, 이들간의 경합과 대체가 대체로 전후 일본학사였다. 변화의 역동성을 잡아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근대화이론 뿐만 아니라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등장한 존슨, 그를 대치하려한 램지어와 로젠블러스 모두에게 결핍되었던 것이다.

니다.

35) 예컨대, McCubbins and Noble(1995). 여기서, 합리적 선택론자에게 미국정치와 비교정치의 전통적인 구분과 양자간의 높은 담이 해체되어졌다. 사실상, 비합리적 선택론의 입장에서 미국과 일본이 동일선상에서 비교, 분석이 이루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 예외는 Silberman(1993).

36) “고정된 현재,” “현재를 정당화하는 불가피한 전개”는 고든(Gordon, 1993)에서 인용

일본모델들이 갖는 상대적으로 정태적, 안정적 성격과 더불어, 일본학에 있어 전체적 지식의 추구는 토착적 관념과 제도에의 경사와 합류하여 필연적으로 연구대상(일본)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적인 것에 의한 일본전체의 해명은 비교의 거부를 가져온다. 즉, 일본은 너무나 이질적이기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 비교분석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 것이다. 일본과 외부세계간의 공유의 가능성은 폐쇄되었다.

그러나, 일본적인 것이란 잘 파헤치면 드러나는 정수(essence)가 아니라 끊임없이 교섭되어지고 타협되어지는 것이며 나아가 고정된 정체성의 강조는 오히려 내부적 차이와 긴장, 모순 등을 억압하는 “전략적 주장”(Kondo, 1990: 10)임이 최근의 연구성과에 의해 설득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기왕의 연구들에 있어서 외부세계(서양)는 일본의 밖에서 외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을 뿐이다. 즉, 외적인 제약요인으로서 서양은 내부적 변화 혹은 내적 재구성을 촉진시키는 자극제일 뿐이고, 일본은 날카롭게 경제지위졌다. 이러한 사고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 역오리엔탈리즘의 담론/정치가 보여주는 것처럼 — 내부적 폐쇄를 가져왔다. 일본적 정체성 혹은 제도는 결국 외적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는 내적(토착적) 요소간의 재결합일 뿐이었다.

일본이 근대세계에 진입하면서 끊임없이 서양문명을 수용하고 변형시켜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Beasley, 1995; Bartholomew, 1989). 메이지기의 근대정치체계의 건설은 維新의 핵심주역들로 구성된 유람단의 1년여에 걸친 구미방문과 공부를 초석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일본적 경제정책체계 역시 서구(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정책사상을 수용, 변형한 것이었다. 이 과정은 일본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 그리고 양자가 공유하는(혹은 보편적인) 것들 사이의 복합화 과정이며, 여기에서 그들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교섭, 타협되고 새로운 정체성의 구성을 위한 정치적 싸움이 진행되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방법론적 반성하에서, 일본에 대한 새로운 그리고 보다 성공적인 해석전략이 구성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첫째, 연구대상 내부에서의 차이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둘째로 열린 국경(혹은 열린 문명)을 상정하여 대상의 안(국내)과 밖(국제)간의 열린 교환의 가능성을 의식하면서, 셋째로 이들간의 조우, 전파, 수용, 변형의 복합적 과정을 주목하되, 이것을 비단선적, 비진화적, 비목적적 역사과정으로 파악하며, 넷째로 새로운 정체성 구성을 둘러싼 고도의 상황의존적이며 경합되는 권력관계, 정치적 거래를 포착함에 의해 변화하는 일본의 모습을 구성하는 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석작업은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경고하듯 이론구성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한 분산된, 의식적인 반추(reflexivity)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석. 1998. 「서평: Japan's Political Marketplace」. *Japan Study*(1998.4.12).
- 최상용. 1994. 『일본 일본학』. 도서출판 오름.
- アキタ、ジョージ. 1993. 『アメリカの脅威と挑戦』.
- 網野善彦, 1993. 「日本列島とその周邊-日本論の現在」, 『岩波講座 日本通史』第1卷.
- 金原左門, 1969. 『日本近代化論の歴史像』. 中央大學.
- ダーワー、ジョン. 1995. 「日本社會像の現在」, 『岩波講座 日本通史』別卷 1.
- ハルトウーニアン、酒井直樹. 1997. 「日本研究と文化研究」『思想』7月号.
- ライシャーワ、エドウィン. 1965. 『日本近代の新しい見方』講談社現代新書.
- Anchordoguy, Marie. 1989. *Computers Inc*. Harvard University Press.
- Allinson, Gary and Yasunori Sone, eds. 1993. *Political Dynamics in Contemporary Japan*. Cornell University Press.
- Alexander, Jeffrey. 1995. "Modern, Anti, Post and Neo," *New Left Review* 210.
- Aoki, Masahiko. 1988. *Information, Incentives, and Bargaining in the Japanese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oki, Masahiko and Hugh Patrick, eds. 1994. *The Japanese Main Bank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 Aoki, Masahiko and R. P. Dore, eds. *The Japanese Fi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pter, David and Nagayo Sawa. 1984. *Against the State*. Harvard University Press.
- Bachnik, Jane and Charles Quinn, eds. 1994. *Situated Mean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rtholomew, James. 1989. *The Formation of Science in Japan*. Yale University Press.
- Beasley, William. 1995. *Japan Encounters the Barbarian*. Yale University Press.
- Bellah, Robert. 1957. *Tokugawa Religion*. Free Press.
- Benedict, Ruth. 1946.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Houghton, Mifflin.
- Bemtein, Gale, ed. 1990. *Recreating Japanese Women*. Stanford University Press.
- Bix, Herbert. 1986. *Peasant Protest in Japan*. Yale University Press.
- Bowen, Roger. 1980. *Rebellion and Democracy in Meiji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alder, Kent. 1988. *Crisis and Compens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Strategic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allon, Scott. 1995. *Divided Sun*. Stanford University Press.
- Cumings, Bruce. 1996. "The Cold War and Asian Studies." Paper presented at the 1996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Hawaii. April 13-16.
- Curtis, Gerald. 1988. *The Japanese Way of Polit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 Dore, R. P., ed. 1965. *Social Change in Modern Jap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73. *The British Factory-Japanese Fac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86. *Flexible Rigidities*. Stanford University Press.

- Dougerty, Andrew. "Japan 2000." Unpublished summary account of a 1990 project at the University of Rochester funded by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 Dower, John, ed. 1975. *Origins of the Modern Japanese State*. Pantheon.
- _____. 1986. *War Without Mercy*. Pantheon.
- Drucker, Peter. 1986. *Frontiers of Management*. Truman Talley Books.
- Eisenstadt, S. N. 1996. *Japanese Civiliz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allows, James. 1989. "Containing Japan" *Atlantic Monthly* (May).
- Field, Norma. 1991. *In the Realm of A Dying Emperor*. Vintage.
- Fransman, Martin. 1991. *The Market and Beyond*. Stanford University Press.
- Friedman, David. 1988. *The Misunderstood Miracle*. Cornell University Press.
- Garon, Sheldon. 1987. *The State and Labor in Prewar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96. *Molding Japanese Mind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eertz, Clifford. 1988. *Works and Lives*. Stanford University Press.
- Gluck, Carol. 1985. *Japan's Modern Myth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ordon, Andrew. 1991. *Labor and Imperial Democracy in Modern Jap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ed. 1993. *Postwar Japan as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ll, John. 1965. "Changing Perceptions of the Modernization of Japan. In Jansen, ed.(1965).
- _____. 1968. "Feudalism in Japan." In John Hall and Marius Jansen, eds. *Studies in the Institutional History of Jap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ley, John. 1991. *Authority Without Power*. Oxford University Press.
- Hane, Mikiso. 1982. *Peasants, Rebels, and Outcasts*. Pantheon.
- Harootunian, H. D. 1987. *Things Seen and Unsee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9. "Visible Discourses/Invisible Ideologies." In Miyoshi and Harootunian, eds.(1989).
- _____. 1990. "Disciplining Native Knowledge and Producing Place." In J. Thomas Rimer, ed. *Culture and Ident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America's Japan/Japan's Japan." In Miyoshi and Harrotunian, eds. (1993).
- Helpman, Elhanan and Paul Krugman, eds. 1985. *Market Structure and Foreign Trade*. MIT Press.
- Ivy, Marilyn. 1989. "Critical Texts, Mass Artifacts." In Miyoshi and Harrotunian, eds. (1989).
- _____. 1996. *The Discourses of the Vanish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ansen, Marius, ed. 1965. *Changing Japanese Attitude Toward Modern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hnson, Chalmers.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University Press.
- Katzenstein, Peter, ed. 1978. *Between Power and Plent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oschmann, Victor. "Japan Studies, Global Capitalism, and the American National Interest." Unpublished manuscript.
- Kondo, Dorinne. 1990. *Crafting Selv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ohno, Masaru. 1996. *Party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Jap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asner, Stephen. 1978. *Defending the National Intere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ugman, Paul. 1987. "Strategic Sectors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Robert Steim, ed. *US Trade Policies in a Changing World Economy*. MIT Press.
- Kumon, Shumpei and Henry Rosovsky,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Volume 3. Stanford University Press.
- Lipset, Seymour. 1959. *Political Ma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ockwood, William, ed. 1965. *The State and Economic Enterprise in Japan*. Princeton Univ. Press.
- MacDougall, Terry. 1994. "Taking Japan Seriously: American Political and Economic Studies on Japan." Paper presented at the Kyoto Conference on Japanese Studies.
- Marshall, Byron. 1968. *Capitalism and Nationalism in Prewar Japan*. Stanford University Press.
- McCubbins, Mathew and Gregory Noble. 1995. "The Appearance of Power." in Robert Cowhey and Mathew McCubbins, eds. *Structure and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Namara, Daniel. 1995. *Textil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in Japan*. Cornell University Press.
- Miyoshi, Masao. 1991. *Off Center*. Harvard University Press.
- Miyoshi, Masao and H. D. Harootunian, eds. 1989. *Postmodernism and Japan*. Duke Univ. Press.
- _____. 1993. *Japan in the World*. Duke University Press.
- Moore, Joe, ed. 1997. *The Other Japan*. M. E. Sharpe.
- Muramatsu, Michio. 1993. "Patterned Pluralism under Challenge." in Allinson, ed.(1993).
- Muramatsu, Michio and Ellis Krauss. 1987. "The Conservative Policy Line and the Development of Patterned Pluralism." In Yamamura and Yasuba(1987).
- Najita, Tetsuo. 1974. *Japa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ajita, Tetsuo and Victor Koschmann, eds. 1982. *Conflict in Modern Japanese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ajita, Tetsuo and H. D. Harootunian. 1987. "Japanese Revolt Against the West." In Peter Duus, ed.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 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ttl, J. P. 1968. "The State as a Conceptual Variable." *World Politics* (July).
- Norman, E. H. 1940. *Japan's Emergence as a Modern Stat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 Ohkawa, Kazushi and Henry Rosovsky. 1983. *Japanese Economic Growth*. Stanford Univ. Press.

- Okimoto, Daniel. 1989. *Between MITI and the Market*. Stanford University Press.
- Patrick, Hugh and Henry Rosovsky, eds. 1976. *Asia's New Giant*.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Pempel, T. J. 1978. "Japanese Foreign Policy." In Katzenstein, ed.(1978).
- _____. 1987. "Unbundling of Japan, Inc.," *Journal of Japanese Studies*, 13: 2.
- Pempel, T. J. and Tsunekawa Keiichi. 1979. Corporatism Without Labor? In P. C. Schmitter and G. Lembrach, eds.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Sage.
- Pharr, Susan. 1990. *Losing Fa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ietz, William. "The Post-Colonialism of Cold War Discourse." *Social Text* vol. 7(1-2).
- Prestowicz, Clyde. 1988. *Trading Places*. Basic Books.
- Ramseyer, J. Mark and Frances Rosenbluth. 1993. *Japan's Political Marketplace*. Harvard.
- _____. 1995. *Politics of Oligarchy*. Cambridge.
- Rosenbluth, Frances. 1989. *Financial Politics in Contemporary Japan*. Cornell.
- Rostow, W. W. 1963.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id, Edward. 1979. *Orientalism*. Vintage.
- _____. 1993. *Culture and Imperialism*. Knopf.
- Samuels, Richard. 1987. *The Business of the Japanese State*. Cornell.
- _____. 1992. "Japanese Political Studies and the Myth of the Independent Intellectual." In Richard Samuels and Myron Weiner, eds. *The Political Culture of Foreign Area and International Studies*. Brassey's.
- _____. 1994. *Rich Nation, Strong Army*. Cornell University Press.
- Scheiner, Irwin. 1978. "Benevolent Lords and Honorable Peasants." In tesuo Najita and Irwin Scheiner, eds. *Japanese Thought in the Tokugawa Perio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hively, D. H., ed. 1965. *Tradition and Modernization in Japanese Culture*. Princeton Univ. Press.
- Silberman, Bernard. 1982. "The Bureaucratic State in Japan." in Najita and Koschman, eds.(1982).
- _____. 1993. *Cages of Reas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kocpol, Theda. 1979. *State and Revolu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aka, Stephan. 1993. *Japan's Orie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yson, Laura D'Anrea. 1992. *Who's Bashing Whom?*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Upham, Frank. 1987. *Law and Social Change in Postwar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 Uriu, Robert. 1996. *Troubled Industries*. Cornell University Press.
- van Wolferen, Karel. 1989. *The Enigma of Japanese Power*. Knof.
- Vlastos, Stephen. 1986. *Peasant Protests and Uprisings in Tokugawa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Vogel, Ezra. 1979. *Japan as Number One*. Harvard University Press.
- Wallerstein, Immanuel. 1992. *Unthinking Social Science*. SUNY Press.

- _____. 1996. *Open the Social Sciences*. Stanford University Press.
- Ward, Robert, ed. 1968. *Political Development in Modern Jap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swo, Ann. 1985. *Social Protest and Popular Culture in Eighteenth-Century Japan*. Univ. of Arizona Press.
- Weber, Max. 1930. *Protestant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 Yamamura, Kozo and Yasukichi Yasuba, eds.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Domestic Dimension* Vol. 1. Stanford.

AMERICA'S TWENTIETH CENTURY AND RESEARCHING JAPAN

Yul Soh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review the Postwar American studies of Japan and to do so by taking up the literature as a discourse that reflects the currents of American social scientific traditions, style of thinking, and institution. In this sense, it is not an attempt to expose the American distortion/unrealness of Japan and thereby recover, the truth of it. It rather focuses its analytical attention on how the image of Japan has altered as time goes by and how their epistemology and methodology of approaching Japan have evolved.

The analysis starts from the "centering" tradition that started from modernization theory. It sized up Japan by integrating Japanese authentic culture into the process of political economy. The Upshot is that Japan emerged as a peculiar, exceptional creature that could be captured in a totalizing and essentialist way. This tendency continued while post-modernization theories denied the alleged centrality of an essential culture, and also took the notion of conflict in their theorizing. The master code having access to "genuine" Japan has been replaced by a developmental state, an elite conspiracy, and a market-based principal-agent relationship. A counter-movement, however, was set up which is not only a criticism of essentialism but also of a stable mastercode. Loosely defined as cultural studies, it breaks down Japan.

Japan here is not a fixed entity of any sort. It is to be tackled epistemologically and a front attack is demystifying /deconstructing an orientalist Japan.

Ultimately, this paper suggests that a more successful interpretive strategy be constituted by the following: one that reacts sensitively to the internal difference of the object(Japan); that values the possibility of an open exchange between its interior and exterior of it; that captures the historical process by which Japan and the West encountered through diffusion of ideas/institutions; that interprets these processes in a non-unilinear, non-evolutionary, non-necessitarian way; that values the contingent nature of politics that would shape and reshape Japan's identity; and finally, that maintains a decentered and self-conscious reflexivity about ideological dimensions of constituting theory, as Edward Said warns.